여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1억 원 사전구매 약정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앞두고 순천시와 협력
대규모 관광객 유치 위한 다양한 지원도 확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1억 원 사전구매를 약정하며 박람회 성공개최에 힘을 실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에서 여수시와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1억 1천만 원을 사전 구매하는 약정식을 가졌다.

시는 이번 사전구매 1억 원 달성을 위해 홍보활동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우선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박람회 벤치마킹 등을 위해 3천600만 원을 구매하며 지역 내 입장권 구매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여수시사회복지시설연합회에서 후원금 등으로 2천400만 원을 구매했다.

구매된 입장권은 저소득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 등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또한 시의 홍보활동에 힘입어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에서도 산단 입주기업들의 동참을 이끌며 5천여 만 원을 구매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이번 입장권 구매가 여수시와 순천시가 상생 협력하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입장권 구매뿐 아니라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TF를 구성해 박람회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최종민 기자

곡성, 일상회복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27일부터 6월 말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상회복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3월 12일 24시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이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곡성심청상품권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급기준일 이후 관외 전입자, 지급기준일 이전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서는 신청 기간 동안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를 상시 운영하고, 세대주 신청 시 세대별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주말 사전예약제를 마련해 군민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마을로 찾아가는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2인 1조로 조를 편성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재난과 장기적인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덜어지고, 군민이 예전의 안정된 생활을 회복해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심선섭 기자

구례군, 전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 예방 직무교육

구례군은 최근 섬진아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관한 공직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재해 발생 유형을 분석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직원들의 중대재해 사전 예방조치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발생원인 및 대책 ▲관리감독자 지위와 역할 ▲작업장 위험 요인 예방 및 대책 ▲산업현장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양정열 센터장이 강의했고, 유영광 부군수를 비롯한 팀장급 이상 관리자 및 전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중대 산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중대재해 예방 절차서 및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홍경석 기자

광양매화축제가 펼쳐지는 섬진강가에 유럽형 프리마켓 '리버마켓@섬진강'이 펼쳐져 축제장을 찾은 상춘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리버마켓@섬진강'은 수도권 밖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프리마켓으로 지역 농부가 재배하고 작가들이 손수 만든 핸드메이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광양시 제공

광양매화축제, '리버마켓@섬진강' 호응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펼쳐지는 섬진강가에 유럽형 프리마켓 '리버마켓@섬진강'이 펼쳐져 축제장을 찾은 상춘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리버마켓@섬진강'은 서울 등 수도권 밖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프리마켓으로 지역 농부가 정성껏 재배하고 작가들이 손수 만든 핸드메이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총 112개 부스로 구성된 마켓은 사과, 버섯 등 각 지역의 친환경 대표 농산물과 쿠키, 액세서리 등 정성이 묻어나는 수제품, 향긋한 초화류 등이 감성을 자극한다.

또한 물레체험, 글라스 아트 등 다양한 체험과 구매 후 SNS 인증 후기를 올리면 카메라 페이퍼토이를 선착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섬진강 둔치에 넓게 조성된 무료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아기자기하고 낭만적인 '리버마켓@섬진강'을 구경하고 나면 무료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다.

5분 정도 소요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좋지만, 느긋하게 흘러가는 섬진강과 눈맞춤하며 축제장까지 걷는 것도 광양매화축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최종민 기자

순천,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
대학(원)생 전입장려금 최대 50만 원 지원 등 홍보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대학교 개강 시기에 맞춰 지역 내 미전입 실거주자들의 주민등록 이전을 독려하고 인구정책 시민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은 실제 순천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있는 대학생들의 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14일 순천대학교를 시작으로 순천 제일대, 청암대학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시 보육아동과 인구출산정책팀과 인근 읍면동 전입신고 담당자가 함께 접수해 전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해 읍면동에 재방문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특히 전입 혜택, 월세 지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홍보물도 함께 배부해 그동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대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전입지원과 월세 지원 등 시책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순천시민으로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타 지자체에서 관내로 전입한 순천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원)생에게 지역상품권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외에도 전입축하물품(종량제봉투), 2인 이상 세대에 이사용품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다. /최종민 기자